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11호
사순절 셋째 주일
2020년 3월 15일
예배시간 09:30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 노진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예 배 순 서 사순절 셋째 주일

전주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J. S. Bach) ·····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33장**(영광스런 주를 보라) ·····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사 53:4–5),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회 중: 아멘.

***송영** ·····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회 중: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목 사: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회 중: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목 사: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회 중: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목 사: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회 중: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시 95:1–7). 아멘.

경배찬송 **526장**(목마른 자들아) ·····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대하 7:14)는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대하 6:27).

응답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경동찬송 11장) ..... **다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침묵의 기도 .....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시 86:5)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민 14:18)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거룩하신 하나님**(경동찬송 32장)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영원하신 주여 자비 베푸옵소서

말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7:1-4** ..... **박선교 목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 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로마서 5:1-5** ..... **김민정 목사**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

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 **다함께**

생수 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4:5-24** ····· **목사**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 **다함께**
등불 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 **목사**
기도 ..... **함천진 장로**
응답송 ..... **오르가니스트**
특송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G. H. Stölzel) ..... **송승연 집사**
설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 **채수일 목사**
기도 .....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615장**(그 큰 일을 행하신) ..... **다함께**
*봉헌기도 .....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 **다함께**
*축도 ..... **목사**
*송영 ..... **오르가니스트**
후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M. Moody) ....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주일예배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2. 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반드시 헌금자를 기명하여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제3일

장공 김재준 목사(1901–1987)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 계셔야 하겠습니다. 헤롯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나의 일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눅 13:31–33)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를 잡았다. 그래서 첫 날에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다음 날에는 무덤 속에 가두고 인봉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악의 한계점에서 "됐다!"하고 개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아니다!"하고 무덤을 헤친다. 예수에게는 이 "제3일"이 있었다. 그의 생명은 다시 살아 무덤을 헤치고 영원에 작열(灼熱)한다.

"제3일" 그것은 오늘의 역사에서 의인이 가진 특권–역사의 희망은 이 "제3일"에서 동튼다. 이 날이 없이 기독교는 없다. 이 날이 없이 새 역사도 없다.

(장공 김재준 목사, 『제3일(The Third Day)』 제3일사, 1970년 창간호.)

다음 주일 말씀

3월 22일(사순절 넷째 주일)

성 경: 구 약(사무엘기상 16:1–7)
서신서(에베소서 5:8–14)
복음서(요한복음서 9:1–7)

설 교: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채수일 목사